



# 쓰레기더미에 파묻혀가는 세상

조일성/ 본협회 홍보부장

## 머릿말

자연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해야 하며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을 사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를 물려받게될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환경보전이다.

춘하추동, 우리의 산은 설틈도 없이 신음하고 있다. 속으로 앓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속도로 오염돼가고 있는 것이 비단 산만은 아니다.

심산유곡에서부터 시냇물에 이르기까지 더럽혀졌다. 도시를 벗어나도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은 좀처럼 힘들어지고 설악산 등 이름난 명산이나 국립공원도 쓰레기에 묻혀있다시피 하다.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전국 각처에 퍼져 있다.

앞으로 도로망이 더 확장되고 교통수단이 대중화함에 따라 「민족대이동」을 방불케하는 행락인파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의 산천이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일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이처럼 전국의 산천이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요즘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종이컵, 비닐봉지, 빈병 등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한정의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1회용 상품의 범람을 꼽을 수 있겠다.

여기서는 전국토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의 발생과 그 실태, 외국에서의 사례와 그 대책 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 자연에 버려지는 쓰레기

산과 들에 나가보면 각종 쓰레기의 잔해를 자주 보게돼 버린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인상이 먼저 쩡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쓰레기들은 각종 음료수병, 술병, 쥬스캔, 파자봉지, 라면봉지를 비롯해서 담배갑에 이르기까지 주요 쓰레기들이 먹고 마시고 남은 것들이다.

거기다 더보태서 야외에서 음식을 해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각종 반찬종류와 밥, 카바이트재, 강통, 휴지 등이 계곡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기 일쑤이고, 그나마 흙속에 매립한다고 하는 것이 영성해서 음식찌꺼기 있는 쪽에는 쇠파리가 들끓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대도시 근교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상록회 대학생연합회(16개대학 150명) 대학생들이 국립공원 도봉산 제3야영장에서 우리 협회와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등산객의 환

## 산과들에 나가보면 각종 쓰레기의 잔해를 자주보게돼 버린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인상이 먼저 찡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보전에 대한 의식조사와 환경보전운동을 한 바 있다.

청년지역사회개발 상록회에서 주최하여 실시한 이 환경보전운동 및 세미나는 도봉사 국립공원 일대에서 야영을 하며 인근지역과 계곡 등산로 등지의 쓰레기를 수거해 취합·분석했는데 그 결과 쓰레기 62.8kg중 병이 3백 29개, PVC 병 57개, 캔이 2백 73개 등이었다. 이를 품목별로 크게 나눠보면 우선 주류회사(특히 소주병과 맥주병 등), 각종 탄산음료주식회사, 캔·쥬스를 생산하는 회사와 캔통조림회사, 제과사, 라면회사 등이 있으며, 건전지회사, 세척제를 생산하는 회사와 각종 드링크류를 생산하는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 회사가 쓰레기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 대학생들이 수거한 쓰레기중 분해 가능한 생활쓰레기중에서 과일·쌀·음식물찌꺼기 등이 5마대를 차지했는데 이것들은 땅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고 이음식물 찌꺼기는 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철제품, 화장품병, 건전지, 세척제류, 양념통, 여러가지를 수거할 수 있었는데 산정상부근에서 이런 중금속성분이 든 건전지, 세척제, 화장품 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레기수거에 쓴 비용이 8억 3천만원이었고, 쓰레기 수거요원은 7만 7천명이 동원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평일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버리거나 매립한 쓰레기는 다시 제 2의 공해요인이 되어 우리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농촌에 버려지는 페비닐·농약병

농촌쓰레기의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과 농업용 비닐의 수거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비닐은 주로 고추밭과 담배밭 등 농촌 경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특용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된 멀칭용 페비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합성수지는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으로 현대를 플라스틱시대라 일컬을만큼 크게는 선박·건축자재에서 작게는 의학용 정밀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광범위하여 매년 생산량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합성수지는 썩지도 않고, 녹이면 독성을 뿜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후 그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악성물질로 변하게 된다.

폐합성수지를 함부로 매립하여 농경지에 묻게 되면 토양층의 수분과 영양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므로 지력이 감퇴되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되며, 대지에 묻으면 대지의 불안정으로 건축구조물에 균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폐수지를 감량시키고 자원화시키는 한편 못쓰게된 폐수지를 무해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매립지, 자원, 환경오염 등 위험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또한, 페비닐외에 각 농가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농약사용이 증가되고 농민들의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농약 빈병이 하천이나 산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잔류농약과 깨진 농약병조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동물가축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농촌자연환경훼손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청산하 한국

## 농촌쓰레기의 경우, 농사를 짓기위해서 사용하는 농약과 비닐의 수거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지난 87년부터 농촌폐비닐 수집과 병행하여 기존조직을 활용, 농약 빈병을 kg당 90원(개당 30원)씩 주고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재생공사가 농약 빈병을 수집하기 시작한 87년도에 농약병 발생량은 5천 6백 14 만개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수집실적은 3천 4백 51 만개를 수집했고 88년도에는 6천 3십 3만 4천개 중에서 3천 7백 5십 9 만개를 회수했다고 한다.

즉, 지난 87년도에 62%의 수집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총발생량중 민간수집분이 십만 4천 톤(36%)이며, 공사수집분이 46%를 기록하고 있다.

공사창설년도인 80년부터 88년까지 총수집량은 22만 6천 1백 38톤인데 이 양은 우리나라 총발경지면적 1백 8십 8만 7천 3백 12 ha를 15배 덮을 수 있는 양을 수집한 셈이다.

### 이탈리아의 「비닐주머니 사용금지」 포고령

지구는 한정된 면적이지만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 자연훼손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1986년 10월 이탈리아의 한 소유장이 취한 조치로 인해 1987년 10월 쓰레기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전국민의 관심이 환경정화에 쏟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1986년 10월 파두아 인근에 있는 인구 1만 3천의 소도시 카도네게에서 비닐주머니와 플라스틱병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이 나라가 생산하는 연간 320만 톤의 플라스틱 가운데 100만톤이상 -전체의 40%-이 상품포장에 사용된다.

매년 이탈리아인들은 90억개의 비닐쇼핑백을 사용하며 PVC(폴리염화비닐)나 PET(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병 10억개에 든 음료수와 미네랄워터를 소비한다.

또 고기, 치즈 및 야채의 포장에도 약 4만 5천톤의 투명플라스틱필름이 쓰이며, 상품 포장시 빈공간을 채우는데 폴리스티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요구르트, 치즈 및 아이스크림용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치약까지도 플라스틱튜브에 담겨나오고 있다. 그것이 포장, 용기 또는 휴대의 어느 용도든 이들 플라스틱은 “버려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에” 버릴 것인가?

이탈리아의 8,100개 읍과 마을 가운데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는 곳은 반도 안된다. 또 이 나라의 9천여개 쓰레기장중에서 2백만이 관리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단순히 쓰레기가 버려지는 특정 장소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인들은 매년 100만톤이상의 플라스틱쓰레기를 버린다. 그리고 그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카도네게의 읍장은 자신이 사는 읍과 주변의바다가 플라스틱더미로 덮이는 것을 걱정하던중 포고령을 작성·증포했다. 한 작은 읍의 읍장이 90만개의 비닐주머니에 맞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플라스틱공업협회는 카도네게 등 ‘플라스틱을 추방한’ 읍장들과 법정투쟁을 벌였고, 협회측 변호사들은 건강상의 “비상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닐주머니의 사용을 금

## 쓰레기에 파묻혀 질식되어가는 국토의 숨통을 트고 건강을 회복시키기위해 온 국민이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때다.

지시권 권리가 읍장들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비닐주머니 매상고만 해도 연간 1,750 억원이나 되며 270개 회사의 1만2천여 종업원들이 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포장산업은 연간 약 3조천억원 규모이며 고용인원도 6만명에 이르고 있다.

플라스틱산업의 규모와 그에 딸린 일자리의 수를 감안할때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을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포고령을 선포한 읍장들조차도 금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국 이런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1987년 10월 29일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 제6조에는 198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고 비닐주머니, 플라스틱 포장용품 및 병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애매하므로 명확한 처리규칙 제시가 요망되기는 하나 이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자체가 갖는 의미는 큰 것이다.

### 쓰레기처리대책은?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면서 깨끗한 환경을 열망하는 인간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만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쓰레기로 뒤덮

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그 몇가지 대책을 들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 부터 줄이는 것이다.

소비자의 차원에서 한가지 방법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자들을 더욱 자극해서 포장재나 비닐 등을 사용,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는 수거비를 부담케 하라는 것이다.

또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수거·매립해도 쉬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피하고, 대용품인 종이봉지나 쇼핑시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거·재생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재생해서 쓰는 방법은 자원절약에도 큰 보탬이 되고 쓰레기의 양도 줄여주므로 일석이조라 하겠다.

다음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빈병 등은 수거해서 그 분량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무것에나 서슴없이 버리는 습관을 국민 스스로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에 파묻혀 질식되어가는 국토의 숨통을 트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토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이 우리 세대가 짊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며,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